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817호 현대불교 2011년 1월 1일(음 11월 27일) 토요일 / 불기 2555년

A21

모두가 한 철의살림살이니까 착을 두지 마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몸이 금방 이 자리에서 그냥 막 처치가 된다 하더라도, 가루가 돼서 부서지고 쇳덩어리 속에다 넣고 찌어서 가루를 만든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그렇게 당당한 금강신이요 또는 팔십중호의 그 호까지도 호다 이거예요. 이름까지도 호다 이거예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니 되는 게 없고 손 안 닿는 데가 없고 한 발 디디서 평방이요, 천체 안 디딘 데가 없기 때문에 팔십중호라고 하는데 그 종마저도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름, 이름이 아니라 소리거든요. 그렇게 여여하게, 여복하면 '팔십'이라고 그랬어요. 팔십은 그대로 돌아가는 길 뜻하거든요. 만(만)자로 말이예요. 그러니 중도 호나라 이거예요. 이름이 나라, 이름, 그 이름 없는 것이 바로 호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죠? 이름 짓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름이 여러분인 것은 아니죠.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서춘보 스님 얘기 했죠? 사람이 지혜가 터지면 그렇게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보여 줘 가면서 건졌지만 지금은 물질적으로 보여 주지 않고 빛보다 더 빨리, 그것을 누가 한다 안 한다 이 걸 떠나서 그냥 하고 건지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실 당시에 그렇게 되었던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준 그 자체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그렇게 빛보다 더 빠른 바로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건지려도 그렇게 서춘보 스님처럼... 그런데 서춘보 스님도 나라를 건지려고 해서 건진 게 아니예요. 친구를 찾아갔는데 아, 정승을 하던 사람이 글씨 짤세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밥이라고 가져왔는데 우거지죽에 그냥 덩덩덩 덩 알갱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짤세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거든요. 절친한 친구인데 말입니다. 그래 그 집을 나가서 돈 될 게 있다 하고 살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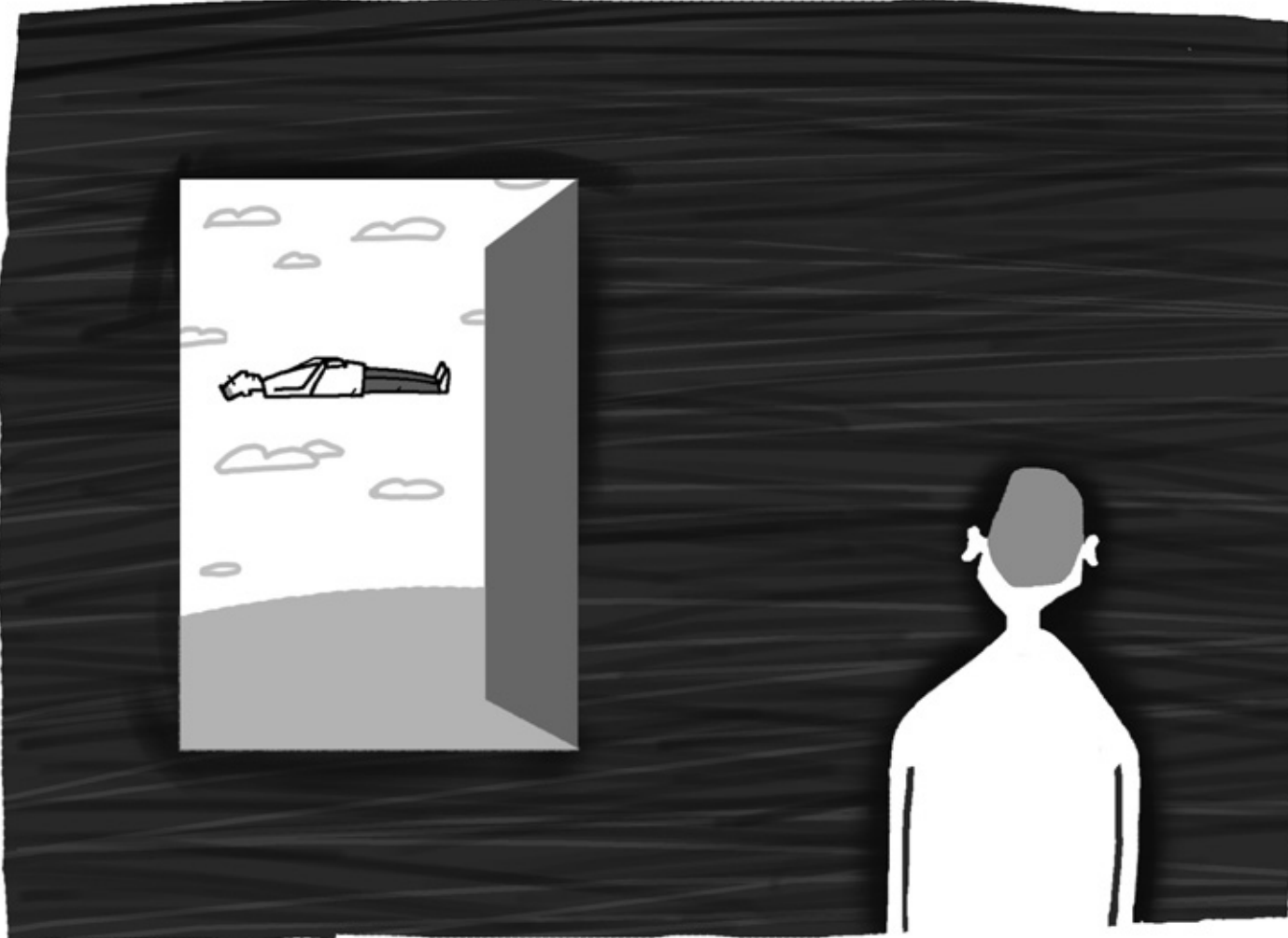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니가 돈 될 거라곤 하나도 없거든요. 그저 바게가 더커더커 노랑게 앉은 질요강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선 무척 '웁지! 내가 나라도 살리고 친구도 살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어보게, 이것 좀 닦아다오" 그러니까 "그건 닦아서 뭘 하겠어" "글쎄, 닦아만 줘.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큰 보물이 될 거다." 그 래 그냥 휘휘 부셔서 주니까 아, 그놈의 걸 백지 에다가 그냥 싸고 싸서 갖다가 한 정승한테 가서 팔았지요. 오백 냥이면 얼마예요? 예전에 오백 냥이면 달구지에도 실을 정도였거든요. 그러해다가 갖다 줬는데도 글쎄, 어디 그래요? 빛진 거 다 갖고 나니까 또 달롱이지요. 그렇게 갖다 주

고는 또 한 철 지나고 와 보니까 또 역시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또 살펴보니까 털은 다 빠지고 반달반 들하게 닳은 호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네 깔고 앉은 거 다오"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하느냐? 짤 세길 꼬느라고 그냥 다 빠졌는데..." "글쎄, 쥐!" 하고선 그걸 툭툭 털어서 싸서는 다른 정승한테 다 오백 냥을 받고 팔아 가지고선 동네에 없는 사람 들에게 다 나눠 주라고 그러고는 또 갖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오니까 또 그래요. 사는 것들이 모두 참혹해요. 그러니까 안 보면 모르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얼른 쉽게 말해서 그게 방생이예요. 꼬꼬마한 거 물고기 넣는 게 방생이 아니 예요. 그래 또 와서 보니까 뭐 갖다가 또 한 정승

한테 팔아야 할 텐데 팔 게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서 보니까 샷이 하나 걸렸는데 바슬바슬바 슬 하고 새뽕이 그냥 모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떼어 달라고 그래서 물을 푹푹 뿜어서 부러 지지 않게만 해 가지고, 새뽕이 있거나 말거나 해 가지고선 정승한테로 달려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서춘보라는 스님은 결박이거든요. 그렇게 찰나의 살림살이를 하되 나그네 살림살 이도 멋지게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 가서는 오백 냥을 달래도 그래도 서춘보 스님을 믿어 요. 왜냐하면 말이 범이기 때문이예요. 요만한 거 하나도 보증 수표거든요. 그러니 그 스님의 말씀 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삼정승이 다 믿 은 거죠. 이거는 3년 있다가 보물이 될 거고 하나

는 6년 있다 될 거고 하나는 9년 있다가 될 거니 까 이것만 써서 아주 보관을 잘 하라고 한 겁니 다. 그것도 그냥 백지로 아홉 번을 싸고 공단 보 자기로다가 또 아홉 번을 싸고 양단으로다 싸고 그렇게 해서 하려면 이런 큰 상자에다가 넣은 거 지요. 그냥.

글쎄, 질요강 하나를 그렇게 해서 넣었으니 어떻게겠소? 품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놔둬라. 그러면 어느 땐가 이것이 큰 보 물이 되고 나라를 구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으니 어려운 사람들 다 살 리고 나라를 살린 겁니다. 네? 그러니 자기가 자 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말로 하자면, 그 친구가 어려운 걸 보고 그 질요 강을 보는 순간에 생각이 그렇게 들었던 거지 요. 그때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작은 집이라고 했으니 너무 폐단이 많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다시피, 역사를 보면 단 말입니다. 그 랐는데 그때에 그렇게 오게끔 만들어서 이쪽에 도,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도 의인이 이렇게 떳떳하게 있고 사람이 있노라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즉, 나라를 살리 기 위해서도 또 가난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 그 해가 지나니까 중국에서 사신을 딱 내보내서 "여기 조선에 있다는 보물 을 들려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안 들으면 너 희는 아예 우리 말을 듣고 우리 지배하에 살아라." 이러니까 그거 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서춘 보 스님은 어디로 간 곳이 없어요. 이 정승들은 물론이고 대궐 안이 발라 뒤집혔어요. 도대체 그 령게 한다고 갖다만 찢지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해 서 어떻게 해야 옮으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스님을 찾으러 운동 방방공공에 방을 붙이고 찾 으러 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스님은 벌써 다 알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모두 밥들을 못 먹고 그냥 입술이 다 부르터져서 깨지고 피가 나고 이래도 왜들 그런 게 밥을 못 먹느냐고, 그리고 태연하신 거예요.

22면으로 계속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신입, 편입(학점은행제)생 모집요강

I. 주의사항

1. 불교전문교육기관인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 학점은행제 실시교육기관이다.
2. 제출 및 전형료는 일체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3. 부정 및 불법행위 기타의 부정행위로 합격 또는 입학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4. 합격통지 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5. 입학원서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우편으로 입학원서 접수시 전형료를 소정의 계좌로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 된다.
6.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 전형 절차에 따른다.

II. 제출서류

학 과	제 출 서 류	제 출 방 법
신 편 입 공 통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 본교 교학처 및 우편접수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	2. 우편접수시 인터넷에서 교부한 원서에 사진 부착후 여타의 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 주민등록본 1부	
	4.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서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5. 2학년 편입 경우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1부(단 영산재보존회에서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3. 접수처: (우)120-150 서울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학 행정실
	6. 반명함판 사진 4부	
	7.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III.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1. 응시자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불교학, 음악, 무용)출신자

2. 신입입 전체공통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시~7시	조인각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7시	이기봉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7시	마일운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 1시~7시	김현수	30
불교의식(이론I)	범불교의식	화	오후 1시~4시	심만춘	30
불교교양(이론II)	불교교양	화	오후 4시~7시	한환안	30
불교의식실기(실기)	시연 대령 관육	월	오후 1시~7시	이기봉	30

* 단 불교의식 실기과정은 상주권공 수료자 이상

- ①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②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제출서류 : ③ 주민등록본 1부
- ④ 반명함판 사진 4부
- ⑤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서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 ⑥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3. 학점은행제

학 점 은 행 제 모 집 (2011학년도)							
2010학년도 1학기 과정				2010학년도 2학기 과정			
개설과목	교 수	요 일	인 원	과 목	교 수	요 일	인 원
범패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범패실습II	조인각	월	30
사물실습	이기봉	월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심만춘	화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환안	화	30	불교학개론	한환안	화	30
				화청과회심곡별곡	이기봉	월	30

- 지원자격 : ① 고등학교수준이상자. (전문대 과정 4년제 대학과정 중퇴자)
- ② 타기관 학점은행제 수강자.
- ③ 타 전공학위를 원하는 자.

4. 편입과정

- 지원자격 : 동방불교대학 법학과 졸업자
- 제출서류 : ①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 또는 옥천범음대학 상주권공 수료자에 한함)
- ② 신원입공통서류 참조

IV. 원서전형일정

- ① 원서교부 : 2011년 1월 3일(월) ~ 2월 11일(금)
- ② 등록기간 : 2011년 2월 21일(월) ~ 2월 25일(금)
- ③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11년 3월 7일 오후 1시
- ④ 추가모집 : 출석일수 1/3 미만시
- ⑤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원
- ⑥ 납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012501-04-204671 / 예금주 이수길
- ⑦ 유의사항 : 납부기간 내에 미납시 불합격 처리 됨. 실명입금원칙으로 하며, 타인 명 입금시 반드시 전화요망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V. 합격자 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VI. 특 전

- ① 재학생중 4년과정을 졸업시 중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한다.
- ②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 품수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 학생 출가자는 제외.
- ③ 4년 과정을 수료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 ④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선발을 부여하고 각종장학금 혜택을 부여 한다.

VII. 입학문의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토· 일: 휴무)

옥 천 범 음 대 학 학 장 이 기 봉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